

투데이 칼럼

표정 관리

허준과 이제라는 오징어묵의 상태를 걸로 나타내는 색을 보고 진단했다. 서양에서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그 지역의 환경과 체상을 보며 사람의 성품과 병을 진단했다. 히로에라를 가진 인장은 모든 게 얼굴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인상과 표정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양욱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습성이 강하다. 한글 사전에도 '보다' 항목에 11가지 뜻이 있다. 반면 '듣다'는 2가지 뜻만 나와 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인 표정에 대해 알아보자. 진화학자 다윈은 인간의 표정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라는 사실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다수의 논쟁이 있다. 슬픔, 기쁨, 분노, 경악 등 기초적인 표정은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도 거의 같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표정을 연구한 결과 미개문명과 선진문명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표현 정도에는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안문화권 사람들은 표정을 표현하는 정도가 서양권에 비해 크지 않다. 필자는 전라북도 국제문화 교류 사업으로 일찍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독일의 노부부가 다정하게 손잡고 지나면서 벤

치에 앉아 쉬고 있는 저를 보고 밝은 표정과 손을 흔들어 반겨주는 모습을 보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기' 운동을 하고 있다. 궁정의 사고로 편견을 버리고 호감 받는 표현을 권한다. 또한, 감정이 먼저나, 표정이 먼저 나오는 것도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정이 먼저이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 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사람의 눈은 보는데, 입은 먹는데, 코는 냄새를 맡는 데만 쓰인다.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만 담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화의 어느 단계에서 이들이 생존 가능뿐만 아니라 내적 상태를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 기능까지 맡게 됐다. 표정은 눈, 눈썹, 코, 입 같은 얼굴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외부로 표현된다. 감정과 표정이 일치해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어 효과적인 스피치 생활을 할 수

있다. 과거 대권 예비주자들의 인상과 표정도 각각 특색이 있다. 정동영씨는 목소리에 예민지가 있고, 강한 추진력이 있게 보이며, 표정은 영특하고 민첩하며 산뜻하다. 그러나 딱딱한 인상을 주고 넉넉함이 부족한 듯하다. 김근태씨는 행동이 느리고 침착해 보이고, 매사에 꼼꼼한 편이며, 진실은 보이나 순발력과 추진력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씨는 얼굴이 잘 균형 잡혀 있어 안정감이 있으나, 환해보이지는 않는다. 미소를 짓거나 활짝 웃어야 넉넉하고, 아늑한 인상을 주며, 당당하게 보이며 선하고 진실하게 보인다. 변신이 없어 보이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씨는 눈이 날카롭지만 살기는 없는 편이다.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하게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노력형이며 마음의 상이 좋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물의 표정이 부족하여 친근감이 없어 보인다. 손화규씨는 눈웃음이 좋고 승부욕이 있어 보이지만, 목소리가 약해 추진력이 없어 보인다. 마음씨는 선하게 보이지만 카리스마가 없어 보인다. 노력하는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강렬한 눈빛을 가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듬직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스피치 표현력이 부족하였고 태도에서도 머리 돌리는 습관이 있어 비호감도 주었다. 인상을 좋게 하는 것은 '미'에서 나온다. 인상과 표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덕'을 쌓아야 한다. '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덕을 쌓아서 영혼이 정화되어 인상으로 표출되고 표정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 동작이 많은 것을 나타내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 할 때가 있다. 언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동작, 자세, 표정이 자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흔히 잊기 쉽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중 55%를 바디랭귀지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표정 관리를 잘해야 호감 받는 인상을 받는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며 상태를 대하자.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생활을 하자. 감정과 표현의 시대에 적응하여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청소년 시위대와 충돌하는 프랑스 경찰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경찰이 청소년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지난 27일 낭테르에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던 나델(17)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와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냥 내무장관은 밤새 경찰관 1200명을 배치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파리와 다른 대도시 주변에 2000명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부두에 내려지는 타이탄 잠수정 잔해



28일(현지시간) 캐나다 뉴펀들랜드주 세인트존스의 캐나다 해안경비대 부두에서 타이탄호 관광 잠수정 '타이탄'의 잔해가 하역되고 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SB)는 심해에서 내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탄의 잔해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사설

전주시 청사 별관 건립

전주시 청사 별관은 신축이 아닌 인근 삼성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제출한 청사 별관 신축 건립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찬반 표결을 통해 찬성 22, 반대 13으로 가결 처리했다. 의회는 가결 처리에 있어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 건립 사업은 원안대로 삼성생명빌딩, 노송주차장, 도로 등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삼성생명빌딩은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하고, 부족한 공간은 인근 부지를 활용하도록 권고 사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인근의 삼성생명빌딩과 노송주차장을 매입해 2024년까지 리모델링한 뒤 별관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의 삼성생명 빌딩은 지하 2층~지상 8층, 전체 건물 면적 7천370㎡ 규모이다. 앞서 전주시는 시청사 별관 신축 건립 사업으로 삼성생명

빌딩, 노송주차장 그리고 도로를 포함한 총 3,170㎡ 부지에 대지 면적 2,359㎡, 지하층에서 지상9층, 연면적 1만3,800㎡ 정도에 8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려고 했다.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빌딩에 임차해 나가 있는 모든 실·국들의 사무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차량 1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포함했다. 그러나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한 시의회의 반대로 신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사업 계획이 수정됐다. 시의회는 부족한 청사는 앞으로 인근 부지 등에 새로 지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동안 시청사 별관 추진 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시의회의 당초 권고대로 별관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백세시대 신문의 역할

시니어신문 '백세시대'가 창간 17주년을 맞았다. '백세시대'는 노인 매체 가운데 17년간 꾸준히 발행되는 국내 유일한 신문이다. '백세시대'는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 일하는 노년'에 이바지한다는 창간 이념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언론 문화 창달의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중장년층을 포함한 시니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대한노인회와는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다. 2006년 창간된 백세시대는 올해로 창립 54주년을 맞은 대한노인회의 요청에 의해 2006년 탄생된 신문이 바로 시니어 주간신문 '백세시대'이다. 백세시대는 90만 노인의 대표단체인 대한노인회와 동반 성장을 했다. 2014년에 '노년시대'에서 '백세시대'로 제호를 바꾸는 등 제2창간을 선언했다. 그 뒤 '100세 시대를 선도하는 신문'

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000만 노인시대와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신문, 그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노인 정책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중요하다. 백세시대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노인 매체 가운데 유일하게 2017년부터 네이버·다음과 뉴스 검색 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도 휴대폰으로 네이버나 다음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기사 검색을 할 수 있다. 백세시대 홈페이지(www.100sd.co.kr)에 들어오면 더 많은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홈페이지는 '자료 아카이브(저장소)' 기능이 있다. 연합회나 지회 활동을 정리하거나 '50년사' 등 노인회 역사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하다. 대한노인회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백세시대'가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